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 성료

남원시는 지난 7일 남원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제13회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지역 아동센터협의회(회장 장선화)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과 가족, 종사자 내빈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행사, 2부 명랑운동회 및 물놀이 프로그램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북도교육청 남원교육지원청에서 게임 진행 및 물놀이 바운스 행사를 후원하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풍성한 추억을 선사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전문 댄스팀의 화려한 방송 댄스 공연이 펼쳐졌으며, 1부 기념행사에서는 협의회장의 개회 선언과 기념사, 축하 낭독이 진행, 식후 공연 난타 & 서플댄스는 참여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2부 행사는 아동들의 나이별 특성을 고려해 고학년과 저학년으로 나누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오전에는 고학년 아동들이 준비운동 후 지구력 기, 2인3각, 낙하산탈리기, 사다리탈리기, 장애물탈리기, 줄다리기, 긴천달리기, 타이어굴리기 등 다양한 운동회 게임을 즐겼다.

또한 저학년 아동들은 축구장에 마련된 물놀이 바운스에서 학년별로 시원한 물놀이를, 오후에는 고학년과 저학년이 프로그램을 맞교대하여 전 아동이 운동회와 물놀이를 모두 공평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물 해주기 위해 고생하신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이기는 것보다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고 재밌게 놀고, 즐거운 추억 듬뿍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과 활동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남원시에는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정원 537명 중 506명이 이용 중으로, 학부모와 아동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2026 솔멧이굿 개최

진안군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인 2026 솔멧이굿 “맛나게 먹고 치고 놀고 흥이로구나”가 지난 8일 진안전통문화전수관에서 개최했다.

진안군이 주최하고 무형유산 전라좌도진안중령국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좌도농악육성지원사업으로 진안군민과 진안중령농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솔멧이굿’은 절기상 농부들이 한 해 농사의 절반을 지나며 벼의 꽃대가 나올 무렵 고된 노동을 잠시 내려놓고, 농악을 치며 맛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던 전통 세시풍속이다. /진안=유태만 기자

2026 부안학생의회 정기회의 · 워크숍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형식) 주관으로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정기회의 시작과 부안의 역사와 숨결이 담긴 현장 답사 교육활동을 통해 2026년 부안학생의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지난 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안학생의회는 지난 3월 지역 초·중·고 학생의원 23명 출범으로 5개월 동안 분과별 회의를 거쳐 정책 안건을 상정해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위한 교통비 지원, 수학 맞춤형 학습 지원,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 등 총 3건의 지역사회 연계형 정책들이 나왔다.

부안군의회 송희복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김정근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부안학생의회에서 제안한 안건 중 의원들이 부안군민의 복지를 위해 고민하는 점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생의원들에게 격려의 소감을 말했다.

워크숍에서는 부안의 실학 정신과 역사적 사건이 담긴 현장 답사를 위한 김병희(변산중), 나종남(남주중) 교사의 스토리텔링 강의로 반계 유적지 답사와 개암사 일대 백제부흥운동, 허균과 매창 유형원 선생을 추적하며, 우리 부안이 가진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층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는 부안학생의회 의장은 “학생이 만든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며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작년엔 전북, 올해는 이시카와’

전북 청소년 대표단, 우정의 답방길… 정례 청소년 교류 일환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대표단이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지난해 전북에서 맺은 인연을 이어가며 양 지역 청소년 간 우정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전북자치도와 일본 이시카와현 간 정례 청소년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학생 등 15명이 5일부터 10일까지 5박 6일간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학교 교류와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미래세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표단은 지난해 이시카와현 청소년 대표단의 전북 방문 당시 홈스테이 호스트와 학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다시 일본을 찾아 교류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표단은 7일 이시카와현청을 방문해 아비노 유키요시(山野 之義) 이시카와현지사를 예방한 뒤, 양 지역 청소년 교류 확대와 지속적인 우호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이날 학생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조성은 학생은 “이시카와현의 따뜻한 배려와 오랜 역사·전통이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은 가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한일 청소년 교류회에서는 학교생활과 전북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진안 인삼과 고창 복분자, 전주비빔밥 등 지역 특산물, 고창 농악과 고인돌 유적, 한국의 갯벌, 관소리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했다. 또한 3시의 간식, 한국의 과자 소개를 주제로 한 발표와 K-POP 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현지 청소년들과 친밀감을 높였다.



교류회 이후에는 홈스테이 대면식을 갖고 현지 가정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난해 전북에서 교류했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 일본의 생활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우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번 교류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 감각과 다문화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 간 지속 가능한 우호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강 전북자치도 외국인국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북에서 인연을 맺은 청소년들이 올해는 이시카와현에서 다시 만나 우정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양 지역을 잇는 민간교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례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만호기자

전주시설공단, 2026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전국 288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책임 경영을 다하고, 경영혁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199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점수에 따라 ‘가’에서 ‘다’까지 5단계의 평가 등급을 매긴다.

공단은 지난해 2년 연속 ‘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공단을 비롯해 본연의 업무 성과와 경영관리, 재정건전성, 지역 상생 등의 성과가 골고루 우수한 20개 기관이 최상위인 ‘가’ 등급을 받았다.

공단은 ESG 경영 추진체계 구축과 환경·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 경영 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 노력 등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 경영 강화를 추진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정교한 환경 분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PDCA 점검 체계를 가동해 계획된 146건의 정량 지표 과제를 100% 이행하는 탁월한 실행력을 입증했다. 특히 수명장 AI 안전관리 시스템 특허와 민간 개방, 스마트 헬멧 및 IoT 기반 잔디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전년 대비 안전사고를 50%나 감소시키는 등 혁신과 안전 경영 부문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오만호 기자

전주시, 공인중개사협 전북도회와 전세사기 예방 ‘맞손’

전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이정진)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시는 지난 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도회 회의실에서 장재영 건설안전국장과 이정진 도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협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안전 거래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및 분양권 불법·허위 거래 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양 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 활동을 바탕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시와 협회 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겪는 애로사항도 공유됐다.

시는 중개업계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건전한 중개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남원사회복지관, 취약계층에 영양꾸러미 지원

남원시 희망복지지원팀은 남원사회복지관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26년 ‘희망여름 착! 착!’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염과 여름철 건강 악화 위험에 노출된 기후 위기 취약계층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저소득 위기 가구와 중·장년 1인 가구 등 영양 취약가구 25세대를 직접 방문해 10만원 상당의 보양식, 간편식, 건강 먹거리 등으로 구성된 영양꾸러미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상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살폈다. /남원=김기두 기자



안보공단 전북, 건설현장 찾아 폭염 긴급 점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KOSHA, 본부장 홍장표, 이하 공단)는 지난 6일 연일 폭염중계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7월 전북지역 관내 첫 폭염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8월 4일 첫 폭염중계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폭염 취약 업종인 건설현장, 옥외 근로작업 현장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폭염중계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극한 폭염 대응 경보이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공단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휴게 시설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했다. △시원한 물 제공, △그늘과 바람이 확보된 휴식공간 운영, △주거지 휴식 부어,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응급조치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오만호 기자



남원 아영면, 26개 마을 순회 방문

남원시 아영면(면장 김봉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관내 26개 마을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봉례 면장과 각 팀장은 구상마을을 시작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 무더위쉼터 등을 찾아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폭염 대응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또한 농촌공관 정비사업,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아영면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시민안전보험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며,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시 ‘50+어른학교 시즌2’ 수강생 모집

전주시가 신중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사회활동과 일·학습 연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천형 평생학습 사업인 50+어른학교 시즌2를 운영키로 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10일부터 인생 후반기를 당당히 준비하는 50세부터 64세까지의 신중년 주민(전주, 익산, 김제, 순창 거주자)을 대상으로 50+어른학교 시즌2 참여 수강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시즌2 프로그램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되며, 신중년의 다채로운 흥미와 인공지능 시대의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일·활동 탐색 과정 △일상 기술 과정 △커뮤니티 중심 과정 등 3개 영역 총 8개 강좌로 폭넓게 구성되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50+세대는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portal)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평생학습과(063-281-5267) 또는 해당 운영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만호 기자

효자5동 지사협,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간식 전달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일례)는 지난 6일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간식을 전달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이번 나눔은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직접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치킨과 피자 등 간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효자5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청·중장년 밑받침 지원, 취약계층 여름나기 영양꾸러미 지원 등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오만호기자